

새로 나온 책

상위 0.001% 엘리트들의 합리화

영화 '해바라기'에서 주인공 오대식은 "꼭 그렇게 다가져야만 속이 후련했다"고 외치며 울부짖는다. 우리는 경쟁에서 승리한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 독식의 사회에 살고 있다. 단 8명이 전 세계의 부의 절반을 차지했다는 뉴스는 더 이상 놀랍지 않다. 인자한 부자들은 평등과 정의를 위한 고결한 싸움을 벌이는 듯 보이지만 사회질서 꼭대기에 위치한 자신의 지위를 위협할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

저자는 마켓월드라는 개념을 도입해 엘리트 사회의 이면을 파헤친다. 마켓월드란 현 상태에서 이익을 얻으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좋은 일을 해내는 신흥 권력 엘리트들의 세계를 일컫는다. 이들은 "(힘 있는) 나에게 좋은 것은 (힘없는) 당신에게도 좋은 것"이라며 "좋은 일을 함으로써 성공한다"는 윈윈 율법을 설교한다. 저자는 엘리트들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앞장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평등을 만든 권력 방정



엘리트 독식 사회

아난드 기리다라다스 지음/정인경 옮김/생각의힘

식은 뒤지지 않으려 한다고 꼬집는다. 책은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고 믿는 상위 0.001%의 사람들을 만나 '스스로의 행위를 어떻게 합리화하고 있는지' 따져본다. 엘리트들이 낚은 사회질서의 가장자리를 고치며 헛되이 써버린 돈과 시간은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사용될 수 있었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엘리트들은 세상의 구원자인가, 불평등의 공범인가.

424쪽. 1만8000원. /김현정기자 hjk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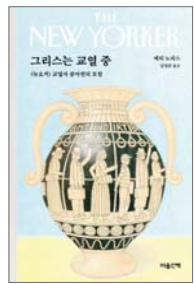
전쟁 말고 커피



가난한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빈민가 뒷골목을 누비며 자라온 목타르 알칸살리는 어느날 우연히 예멘이 '원조' 커피 수출국이라는 사실을 알게된다. 미국에서 '커피의 세번째 물결'을 접한 목타르는 '예멘의 명품 커피'를 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내전이 한창인 예멘으로 떠난다. 예멘 커피의 명예를 되살려낸 청춘의 성공담과 함께 커피의 역사, 커피 산업의 이면을 흥미롭게 그려냈다.

432쪽. 1만5000원.

그리스는 교열 중



그리스어는 불가해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스는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연합의 끝자락으로 취급된다. 국민들은 이탈리아의 가난한 친척쯤으로 여겨진다. 국가 경제는 늘 위태로워 보인다. 저자는 아테네 거리의 내운사인에 갈수록 늘어나는 영어를 보며 안타까워한다. '뉴욕'에서 40년 넘게 교열자로 일해 온 저자가 그리스어와 영어, 그리스 신화의 관계를 색다르게 소개한다.

272쪽. 1만5500원.

복숭아·젤리·연양갱 이색 '아이스바' 뜬다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아이스바 제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

9월 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인 형태의 아이스바가 아닌 애플망고나, 젤리 등 기존에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재료를 활용한 제품부터,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아이스 바 등 시원하고 달콤한 맛에 먹는 재미까지 갖춘 제품들이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달콤 상큼한 풍미의 과일을 활용한 아이스바 제품은 늘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청과브랜드 돌(Dole)코리아가 무더운 여름 시즌을 맞아 GS25와 GS슈퍼마켓에 단독으로 선보인 '애플망고바'는 애플망고를 통째로 얼려 망고의 진한 풍미를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이번 제품은 일반 망고보다 향이 진하고 당도 함량이 뛰어난 애플망고를 활용한 점이 특징이며, 과일 자체의 수분함량이 높은데다 얼리기까지 하여 더운 여름철 고급 과일 디저트로 즐기기에 제격이다.

해태제과는 자두 원물로 만든 아이스바 '아이스쿨 자두'를 출시했다. 자두를 농축한 과즙(8%)으로 생과일의 새콤달콤한 진한 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수박, 포도, 멜론, 딸기 등 대부분의 과일은 아이스크림으로 맛봤지만 자두는 첫 시도다. '아이스쿨 자두'에 들어간 자두는 세계 최대 재배지인 칠레산이다. 고온건조한 고산지대라 당도가 2배 이상 높고 미네랄과 비

이색 재료·다양한 형태로 맛에 재미까지 갖춰 인기
인공감미료 줄여 열량도 똑
기존 제품과 컬래버로 '친근'

타민도 풍부해 품질도 최고다. 열량은 국내 빙과류 중 최저 수준(50kcal)으로 낮췄다. 인공감미료를 최소화 하고 원과의 당도를 최대한 살린 덕분이다. 시원한 아이스바지만 칼로리 걱정까지 없앤 웰빙 디저트로 손색없다.

롯데푸드는 청과브랜드 델몬트를 활용한 과일 맛 빙과 제품을 확대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망고 맛 콘 아이스크림 '델몬트 망고&크림'과 복숭아 맛 아이스바 '델몬트 복숭아' 2종이다. 델몬트 망고&크림은 시원한 망고과일 맛 콘으로 망고농축PURE 6%를 함유해 진한 망고 맛을 느낄 수 있다. 망고 샤베트에 크림 맛 아이스크림을 더해 시원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룬다. 델몬트 복숭아는 복숭아 과즙 35%, 복숭아 과육 5%의 풍부한 복숭아 맛을 느낄 수 있다. 달콤시원한 복숭아 맛에 말랑하게 씹히는 과육의 식감을 더했다.

젤리나 야쿠르트 등 기존에 출시돼 인기를 끌었던 제품들도 눈길을 끈다. 롯데제과가 올 여름을



겨냥해 젤리와 아이스크림을 컬래버레이션한 이색 빙과 제품 '젤리 셔츠 구미 당기는 구미바'를 출시했다. 본 제품은 아이스크림 안에 젤리가 들어있어 달기의 부드러움과 달콤한 아이스크림과 딸기향 가득한 젤리의 쫄깃한 식감이 잘 어울리는 셔벗(sherbet) 제품이다.

한국야쿠르트는 빙과류 '그랜드 야쿠르트바'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야쿠르트의 풍미를 시원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아이스바로 만들었다. '그랜드 야쿠르트바'는 아이스크림 속에 쫄쫄하고 진한 야쿠르트가 들어 있다. 아삭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다.

해태제과는 연양갱을 아이스크림으로 변신시킨 '연양갱바'를 선보였다. 연양갱을 차갑게 먹는 듯 달달한 팔맛에 쫄쫄함까지 그대로다. 만드는 방식부터 연양갱의 특징을 최대한 살렸다. 통팔을 넣는 기존 아이스크림과 달리, 연양갱 특유의 팔양금이 핵심이다. 고소하고 달콤한 맛은 기본이고 부드러움은 텁. 껌질을 벗긴 팔양금이라 입에 걸리는 것이 없어 첫 입부터 끝까지 깔끔한 것도 장점이다. 연양갱의 쫄쫄함도 제대로 담았다.

/박민용 기자 parku7854@metroseoul.co.kr

▶(위쪽부터)델몬트 복숭아, 델몬트 복숭아, 애플망고바, 델몬트 망고&크림 /각사

올 여름 폭염엔... '몰' 안에서 '호캉스'까지 두तो끼

내게 맞는 호텔 찾기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매년 여름마다 극심한 더위가 지속되면서 '몰캉스'가 주목 받고 있다. '몰캉스'란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여가활동을 해결하는 '몰링(Malling)'과 바캉스를 합친 말이다.

최근에는 복합쇼핑몰 내에 위치한 호텔도 주목 받고 있다. 쇼핑, 식사, 엔터테인먼트와 숙박을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신개념 여름 피서지로 떠오른 것이다.

영등포구에 위치한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이하 코트야드 메리어트 타임스퀘어)는 대표적인 '몰캉스' 호텔 중 하나다. 서울 서남권의 대표 복합쇼핑몰인 타임스퀘어와 바로 연결돼 있어 외부로 나가지 않고도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추할 수 있다.

레저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고객도 주목 할만 하다. 김포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직통 리무진 버스를 비롯해 영등포역, 영등포시장역, 문래역과 인접해 있어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 및 상업지구로 이동하기 쉽다.

타임스퀘어 연결돼 '몰캉스' 최적화
공항버스 마련, 비즈니스 고객 제격
객실 키 제시하면 쇼핑물 할인 혜택
리노베이션으로 283개 객실 새단장

이동희 코트야드 메리어트 타임스퀘어 세일즈&마케팅팀 팀장은 "올 여름도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호텔과 쇼핑몰에서 더위를 피하는 '몰링', '몰캉스'가 대세로 떠오르며,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에 많은 분들이 몰캉스와 호캉스를 즐기러 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몰캉스' 최적화 호텔

코트야드 메리어트 타임스퀘어는 '몰캉스'를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표적인 패키지는 '칠링 서머 타임'과 '키즈 호캉스'다.

먼저,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칠링 서머 타임'은 시원한 견과류 팥빙수와 숙박을 포함한 패키지다. 이 패키지는 모모바의 견과류 팥빙수 1개, '어반 바비큐-뉴트로 인 루프탑' 20% 할인 쿠폰을 포함하고 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외경.
▶칠링 서머 타임 패키지.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키즈 호캉스' 패키지는 유치원생,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 '키즈엔키즈' 반일권 1매(성인 1인, 아동 1인 포함)로 구성됐다. 이용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어반 바비큐-뉴트로 인 루프탑은 호텔 시그니처 프로모션이다. 이 프로모션을 이용하면 야외 루프탑 스카이가든에서 뉴트로 감성의 옛날 치킨, 바비

큐, 세미 뷔페와 함께 레드라크 생맥주 및 와인 4종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주목 할 점은 쇼핑물 할인 혜택이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타임스퀘어에 투숙할 경우, 객실 키만 보여주면 타임스퀘어 몰내 제휴 레스토랑 및 카페, 미용실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호텔 피트니스 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5성급 안 부럽네!

코트야드 메리어트 타임스퀘어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리노베이션을 통해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 10개의 스위트룸을 포함한 디럭스 룸, 이그제큐티브 룸 등 총 283개의 객실이 편안하면서도 모던한 인테리어로 꾸며졌다. 또한, 다이닝 레스토랑 '모모카페', 캐주얼 바 '모모바', 6개의 중소형 미팅 룸,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업그레이드 됐다.

특히, '모모카페'는 다채로운 뷔페 메뉴로 구성된 '풀 뷔페(Full buffet)' 스타일로 새롭게 단장했다. 아일랜드 키친 타입의 뷔페 스테이션을 전면 배치해 다양한 한식 메뉴와 해산물 메뉴 선택을 선보이는 한편, 그릴 스테이션 메뉴를 강화했다.

업그레이드 된 시설과 서비스, 여기에 합리적인 가격을 빼놓을 수 없다. 칠링 서머 타임 패키지와 키즈 호캉스 패키지는 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하고 각각 15만 원, 16만 원부터 시작한다. 음료가 무제한 제공되는 어반 바비큐-뉴트로 인 루프탑 프로모션은 세금 및 봉사료를 포함해 성인 5만9000원이다.

고객들의 반응도 좋다. 여름 성수기인 6~8월 객실 점유율은 2017년 80%, 2018년 83%에 이른다. 올해도 유사한 수준의 객실 점유율을 달성할 것으로 호텔 측은 보고 있다. /김민서 기자 min0812@